

# 침례를 위한 마음의 준비

## Preparation for Baptism

**NO. 1. 로마서 6: 1,4,13,16,19** -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새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침례받기 전에, 야게서 우리의 완전한 애정을 요구하심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13,

영혼들이 개심하였을 때, 아직도 그들의 구원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달려야 할 경주가 있다; 끈기있는 분투로 행하여야 할 것들이 그들 앞에 놓여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적을 향해 쫓아 가야 한다. 이 전쟁터에는 해방이 없다; 영생을 위한, 이 전투는 평생동안 계속될 것이며; 그대가 추구하는 가치있는 목표를 향하여 결정적인 에너지와 함께 균형있게 진척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끝없는 관심을 갖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에 참가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어, 미래에 있을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이익에 참가하는 자들이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라. **ML. 313**

**NO. 2. 호세아 10:2- 4**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고 이제 그들에게서 잘못이 발견되리니, 주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부수실 것이요 그들의 형상들을 헐으시리라. 이는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도다. 그러므로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리요?' 할 것임이다. 그들은 언약을 세우는 데 거짓되이 맹세하며 말하였으므로, 심판이 받고랑에 독초처럼 솟아나는도다"

신명기 **23:21- 23**- "네가 야 너의 창조주께 서원하거든 너는 그것을 갚는 데 게을리 하지 말라. 이는 야 너의 창조주께서 반드시 네게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게을리 하는 것은 네게 죄가 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서원하는 것을 그만두면 네게 죄가 되지 않겠으나 네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네가 지키고 행해야 하리니, 무릇 자원하는 예물을 너는 야 너의 창조주께 서원하여 네가 네 입으로 약속한 대로 할지니라."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는 서약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하게 장사되고 그분의 부활과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애를 살아야 한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함께 연합된다. 이 때부터, 신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바쳐진 것을 마음에 명심해야 한다. 그는 이 새로운 관계에서 모든 세속적인 대상들을 이차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는 더이상 부주의하고 냉담한 생애를 살지 않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생애하고, 자기가 받은 모든 재능을 그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결코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가 받은 모든 은사를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6T 98- 99**

에스겔 **36:23- 28** - "나는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즉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 앞,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이방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 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케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케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사탄은 누구든지 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굴복할 필요성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영혼이 온전히 굴복하기를 실패하였을 때, 죄를 버린 것이 아니다; 식욕과 격렬한 감정들이 영혼을 지배하기 위하여 계속 분투한다; 유혹이 감각들을 혼란시키고, 몸과 마음과 정신 안에서 참된 개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는 야 하나님의 법들을 위반하는 죄를 참으로

사람이 포기하면, 우리의 생애는 야수와 예수님의 마음과 뜻대로 조화를 이루어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분들의 거룩한 영에게 감사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거룩함은, 인간의 뜻이 그분의 뜻에 완전히 적합하게 되어 거룩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의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영혼과 몸이 접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자들을 소유물로 사셔서 하나님께 제시하실 것이다. 이는 사탄이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교묘하게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인간 중개인들이 재창조되는 것이다; 이는 사람 속에 있는 부정함 것들로부터 정결한 것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다. 인간 중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완전하고 가장 높은 품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 Letter 17a. 1893, p. 6, 7, 7 M.R 274- 275

**NO. 3.** 고린도전서 15:33- 35, 48- 49 -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림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하니.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골로새에서 믿는 자들이 개심하고 침례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그들의 생애에 일부분이었던 믿음들과 습관들을 포기하고, 참으로 그리스도께 충성하기를 서약하였다. 바울이 그의 편지서에서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켰고, 정연하게 그들이 맹세한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지배하고자 추구하는 마귀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라. 고 간청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골로새서 3:1,2)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27.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악한 습관의 사슬을 깨뜨렸다.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술 취한 자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었다. 사탄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AA 476

로마서 13:11- 14 -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침례 이전에, 후보자가 경험한 것에 관하여 철저한 문의가 있어야 한다. 이 문의를 친절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행하고, 세상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신 야 하나님의 어린양을 지적해 주고, 야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된 것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의 죄된 이기심과 성질, 게으름, 알고 있는 모든 잘못된 습관들과 일상적인 행위들을 단호한 확신을 가지고 영원히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

**NO. 4.** 베드로전서 3:2- 4 -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는 머리를 땅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운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처음으로 믿음에 들어 온 자들에게 교훈하고 지적해야 할 것 중에 한가지는 몸치장에 대한 주제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이 개심한 자가 이것을 충실하게 처리하도록 하라. 그들이 몸치장하는 허영심이 있는가?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몸치장은 우상 숭배이며 정신적인 질병이다. 이것을 새 생애에 인계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순종이 복음에 필요한 조건이므로, 몸치장에 결정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의복에 있어서 부주의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외모를 가장 올바르게 나타내야 한다. 성막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 앞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의복에 관하여 매우 세밀하게 지시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분께서 그 분을 섬기는 자들의 의복에 관하여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교훈을 받고 있다. 아론의 의복에 관해 매우 특별한 지시가 주어졌다. 왜냐하면, 그의 의복은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분을 대표해야 한다.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의 외모는 단정, 정숙, 순결 등으로 특징지어져야 한다. 6T 96

베드로후서 1:2- 4 -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언어들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생활의 성품 안에서 어린양의 피와 거룩한 영의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와 연결되어 야의 뜻에 조화를 이루어 행하므로, 우리가 성장하는 생애를 살고 있음이 동료들과, 천사들의 기록으로 입증된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사업을 행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임무들과 계명들이 있다. 우리 안에서 즐거움이 균립할 때, 우리가 후원과 능력을 받기 위하여 야쉬와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그들의 모든 세속적인 외양들을 버리기를 원하신다. 육신의 몸을 장식하기 위하여 보석들과 값비싼 옷들로 단장함은, 역시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가난을 표시하는 것이다. 사탄이, 부주의한 영혼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놓은 올가미는, 그들이 외면적인 장식을 하는데 더 많은 주의를 끌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 간직하게 되면, 우리의 원수가 아주 기뻐할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가 얻은 것을 마음으로 나타내고 생명 나무의 열매들을 맺도록 하자.

**NO. 5. 고린도후서 3:2-3** -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음이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오?"

요한복음 **14:22-24** -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시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이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적당한 옷차림새로 진리를 표현하고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행실로 야 하나님의 산 모본이 되면,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간파하게 된다. 그들의 순결한 대화는 마음 속에 있는 장식을 나타낸다. 그들의 영향력은 심히 증대되어서, 아버지를 위하여 유익하게 일할 경작지가 그들 앞에 항상 열려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품성을 도야하여 소금을 도처에 뿌릴 수 있는 특성을 소유하면 세상에 표가 될 것이다.

**NO. 6. 로마서 14:6** - "날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날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4:17-19** -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 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에베소서 **4:11-15** - "이는 성도들을 완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야쉬와께서 인간의 본성으로, 그분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유용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그분의 품성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과 외면에서 활기있게 발산되었다. 이 마지막 날에, 이러한 위대한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거칠거나, 난폭하거나, 예절을 모르거나, 대화할 때 가혹한 마음이 절대로 없게 될 것이다. 진리는 결코 품성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그 대신에, 고상하게 하고, 정확시키고, 향상시키고, 또 이러한 진리들을 받는 사람들의 품위를 높인다. 우리가 정확시키는 성령을 통하여 야 하나님의 안보이는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중개인이 되고 그분의 거룩한 교훈들을 완성하게 된다.

**NO. 7. 마태복음 25:32-34** -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 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 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의 왼쪽에 세워 두고, 왕이 그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침례를 받기 위하여 그들 자신들을 제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심하였다고 공언하는 자가 다만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이름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주의 편에 서기를 택하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분리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위치를 완전히 이해한 증거를 보여주었을 때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풍습들과 유행과 자신의 의향들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을 충실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행위의 노선을 바꾸어야 할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교회의 맴로로 보유하면 안 될 것이다. 주께서는 그분의 교회 안에 구성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되고, 충실한 관리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교회 멤버십이 말하지만, 쾌락을 사랑하고, 의복을 사랑하므로,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마음 속에 충동받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 저들의 경솔함과 헛된 대화, 경건에 대한 높은 표준의 결여와 낮은 목표들로 행하므로, 다른 자들을 잘못된 노선을 추구하도록 이끌어 간다, 모본이 될 수 없는 저들의 기만하는 성질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며, 다만 그들 자신의 상상만을 따라 행한다.

예수께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지닌 모든 자들을 익히 아신다. 이들은 시련을 당하고 과오를 범하나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구세주를 슬프시게 한 것을 인하여 괴로와하며 겸손히 구주의 발 앞에 나아와 그분의 싸움을 싸운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저희는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며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TM 128-129**

에스라 **10:11-12** - "그러므로 이제 너희 조상의 창조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의 기쁨을 행하여 그 땅의 백성과 타국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시킬지니라." 하니,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리이다.'

야쉬와 예수님을 그들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이 죽은 상태에 있다고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그분이 승인하실 수 없는 그들의 모든 행실이 죽어야 한다. 우리 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이 태어난 자녀들은 이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지금 우리가 자주 유혹을 받는다, 이는 유혹의 배후에 있는 우리의 악을 식별할 수 있는 지력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로이 태어났으므로 조언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자각하자. 만일 우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추구하면, 항상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단체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곧 순수한 진리의 맛을 분별하고 소유하게 될 것이다.

**NO. 8. 요한일서 3:2-3** -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 분 그대로 그 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 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요한일서 **3:7-10** -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분이 의로우신 것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고,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이 감정적으로 도취되는 믿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이전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들의 생애는 선한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들은 자주 길게 기도한다. 그리고 항상 이전 어느 때에 경험한 기분을 회상한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생애를 살지 않는다. 그들은 속았다.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기본 이상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 그리하여 폭풍이 불어 올 때에 집은 무너져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도 흑암 중에서 더듬거리고 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친히 경험하였다고 말하는 기분을 찾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죄를 깨달은 자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는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음과 생명과 전 인격을 의미한다.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의미는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심을 끊어버리고 그들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단단히 고정시킨다는 뜻이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정신,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를 소유한 것이다. 새 마음을 가졌다는 표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변화된 생애이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기심과 자궁에서 떠나는 것이다. **MYP 71. 한글 90.**

베드로전서 **1:22-23** -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쉬와의 생애를 연구한 모든 자들은 야의 아들의 가르침들을 실행할 것이고 그 분처럼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영향력은 그분의 영향력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건전한 성품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확립하였으므로,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허영심과 자존심이 우리 생애들 안에서 파멸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야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과 겸손한 길로 행하기를 추구한다. 야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 우리의 성품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분투하여서, 그분의 사업을 유익하게 하고 순수하게 증진시키기를 희망한다.

**NO. 9. 베드로후서 3:10-14** -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 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타버릴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두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 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 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야고보서 **1:26-27** -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 없이 지키는 것이다."

야 하나님의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임무들을 실행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분을 추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영혼이 야쉬와와 연합하여 세상에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야쉬와께 주신 것과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승리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말로 증거하고 나타내야 한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을 우리가 사랑한다.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건본이 되는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 야쉬와 안에 있는 지식으로 계속 증가한다. 빛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기뻐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마음 속에 품은 이 기대에, 실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NO. 10. 요한일서 3:6-10** - "그 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 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분이 의로우신 것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고,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2:33-35** -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것을 구별하는 선이 분명하다. 그분의 위대한 능력으로 간직된 야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법들을 파괴하는 사람들의 부패한 영향력으로 둘러싸여 있다. 믿음의 상태가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야의 능력으로 간직되었다. **EV 316**

**NO. 11. 고리도후서 13:5** -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대의 생애에서 참으로 과실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 없이, 그대가 죄인으로써 취해야 할 단계가 있다. 그대는 개심하고, 믿고,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의로우셨다; 여전히 그 분께서는, 세상의 구세주로서, 죄인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고 하늘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그분의 요구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 분 자신이 조치를 취하셨고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고 순수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개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굽히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 누구든지 그들의 길 위에 빛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들을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왜 그들이 죄인들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기를 주저하며, 왜 그리스도께 속죄하는 언어들과 행위들과 그 분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믿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 자신들이 보여주기를 주저하는가? 어떤 자들은 그들이 공언하는 신앙대로 생애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침례받고 그리스도로 옷입는 것을 거절해야 할 어떤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4T 40-41**

갈라디아서 **6:4-5** -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우리의 품성 안에서 야 하나님과 야쉬와 예수님의 모든 지식이 밖으로 드러나면, 하늘과 땅 위에서 높이 평가될 것이다. 이것이 아주 높은 교육이다. 그들이 죄를 끝낸 것과 그들의 정신적인 원칙들이 야쉬와께 고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들이 이해하였는지 못하였는지 확인하고, 또 야께서 혐오하시는 어떤 정신적인 더러움을 소유하지 않았는지를 확실하게

심사할 때까지 아무도 야쉬와와 함께 물무덤에 묻는 침례를 주면 안 된다. 우리가 침례 이전에 참된 개심을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침례 후보자가 참으로 죄짓기를 끝내었는지 세심하게 질문하여 확실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만일 야께서 알려 주신대로, 그들이 철저한 중요심으로 죄를 미워한다고 그들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고, 그들의 행위들로 증언하면, 그들이 지금 물 무덤에 장사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NO. 12.** 골로새서 **3:1-6**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식들 위에 임하느니라."

우리가 첫째로 하여야 할 개인적인 일이 있다. 마음이 진리에 의하여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혼의 재단 위에서 불타야 한다. 오직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은 것들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본 것과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것과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취급한 것을 다른 자들에게 권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세상 어둠 가운데에서 행한 잘못과 의심, 불신과 배신 행위를 떨쳐 버리기를 단행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하게 된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호기심과 냉담함이 자라남을 허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악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YI (10-14-1897)**

베드로전서 **4:1-2** -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함이라."

우리 중에 엄숙한 침례 의식의 주요 부분을 택한 자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서약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우리 자신들이 서약한 것이다. 야께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우리가 어떤 능력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아주 높이 잘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장하는 중대한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관심사들과 적합한 행위로 조화를 이루어 생애하는가?

**NO. 13.** 디도서 **1:10-11, 16** - "이는 불복종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할례과 중에 그러한 자들이 많으니,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들을 배척하는 자들이다."

개심은, 이 시대 세상에서 드물게 있는 경험이다. 이 이유 때문에 교회들 안에서 아주 많은 혼란이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많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더럽고 부정하다. 그들이 침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산채로 매장되었다. 이는 자신이 죽지 않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살기 위하여 일어난 것도 아니다. **6BC 1075**

요한이서 **7-9** -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다.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참된 개심이 실제로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참된 개심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물 무덤 아래로 인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죄의 사악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자.

**NO. 14.** 요한일서 **5:18-21** -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0:13** -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 침례 의식을 받으면, 지금 야를 위하여 일하는 산 중개인이 된다, 참으로 우리가 새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가지고, 세상에게는 죽고 야쉬와게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임을 서약하는 것이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그분들의 성령을 통하여 어두움의 왕자와 '이 세상 신'을 대립하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무덤을 깨뜨려 여시고, 우주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고 선언하신 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실행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하셨다. 요한복음 16:33.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시거나 낙망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와 같은 인내성 있는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저들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하며 그가 일하신 것처럼 일하여야 할 것이니, 이는 저들이 예수를 위대하신 장수로 의지하는 까닭이다. 저들이 용기와 힘과 인내를 가져야 한다. 분명히 불가능한 것같이 보이는 것들이 저희 길을 막을지라도 저들은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저들은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저들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비길데 없는 사랑의 금 사슬로 저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감화가 저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께서 목적하신 바였다. 저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이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다. DA 679

디모데후서 4:18 - "창조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 내시고 그의 하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 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준비하신 무한한 희생으로, 사람들이 사탄의 제의들과 유혹들을 극복하여 승리하고, 결백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대의 생애에 언어들과 태도가, 부주의하고, 불손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논쟁과 가장 진지한 호소가 된다. 우리의 생애에서 품성으로 기독교인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라; 그 다음에 그대가 예수와 함께 한 것과 그분으로부터 그대가 배운 지식을 사람들이 취하기에 압도당하게 될 것이다. CT 478

## 침례를 위한 마음의 준비 - 더욱 깊은 연구 Preparation for Baptism - Further Study

시편 119:33-40 - "오 주여, 주의 규례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나에게 명철을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정녕,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기울이게 하시고, 욕심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 허망한 것을 보는 데서 내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소생시키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데 열중하는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비방을 돌이키소서. 이는 주의 명령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소생시키소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추구하는 자들은 책임지고 일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과서이다. 성경이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그것에 대한 요법을 가리켜준다. 율법사가 질문하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법을 말씀하셨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고 하셨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죄로 말미암는 양심의 가책은 개심의 첫 단계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죄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게하는 도구이다. 이 거룩한 법이 성품의 결함을 깨닫도록 하고, 부패한 죄의 뿌리를 드러낸다. S.T. 11-26-1885

시편 119:125-128 -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명철을 주시어 나로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이오니, 이는 그들이 주의 법을 폐기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녕,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법규들을 바른 것으로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개심한 영혼은 죄를 미워한다; 그는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과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전히 품성으로 그분을 허위 진술하여 그리스도께 치욕을 돌리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은, 자신의 의를 마음에 가득 채워서 계속 나아가므로, 하늘을 향하여 가는 첫번째 단계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하늘을 향한 첫번째 단계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두번째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R.H. 09-17-1895

고린도후서 4:6-11 -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런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품성으로부터 품성으로]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3:18. 인간의 품성이 신의 품성으로 변화되었다. 이 영광을 영적인 눈으로 식별할 수 있다. 이는 성령이 영혼에게 이 식별력을 부여할 때까지 신비 속에 숨겨졌고 가리워져 있다. 이것을 자연인이 식별하기 위하여 추구할 것이다, 자연인이 그의 지성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역시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대화하실 때까지, 가장 크고 가치있는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음이라." 이사야 60:1, R.H. 02-18-1896

야고보서 3:11-18 -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잔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진리로 성화된 자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진리에 의하여 단행된 개혁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천국으로 승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생애에서 교만과 선망과 악한 억측이 압도하는 한, 그리스도께서 그의 심중을 지배하시지 않으신다. 영혼의 심중에 그분의 사랑이 없다. 신에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생애에서 거만하고, 자만심이 강한 영을 십자가에 못박고 자가 반성을 불러일으킨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오, 또 생애 안에서 영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였으므로, 그분의 고상한 품성이 드러난다. 7 M.R 263

창세기 1:27,28 -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분의 죽음 이전에, 세상 죄들을 위하여 그분의 몸이 부서지고 그분께서 흘리실 피에 기념으로 주님의 최후의 만찬 의식을 신설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하셨다. 고린도전서 11:26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는 자는 개심에 필요한 단계로 나아가고, 그분의 침례와 죽음과, 장사지냄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지낸 것과 같이 그가 물속으로 내려가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물속에서 올라온다 - 이는 죄된 옛 생애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사는 것이다. 3 S.P 204, 5 BC 1113

갈라디아서 4:4-6 -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침례 의식을 그분의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는 표로 제정하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위 아래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만드신 이 명백한 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 사람이 교회에서 분향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의 입구를 통과하기 전에, 그가 "주는 우리의 의"이신 (에레미야 23:6), 거룩한 이름으로 깊은 감동을 받아야 한다.

침례는 세상을 포기한다는 가장 엄숙한 선서이다.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의 생애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부분의 이름으로 대중 앞에서 침례를 받고 다짐한 자들은, 사탄의 봉사를 버리고, 하늘 왕국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하늘에 계시는 왕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였다: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이 약속을 이행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6:17,18. 6T 91



고린도전서 **12:12- 13, 25- 26** -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필요를 깨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람이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죄를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식욕과 정욕이 패권을 쥐고자 애를 쓰고, 유혹이 양심을 혼란케 하므로 참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모든 사람이 사로잡고 유혹하고 속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반드시 싸워야 할 투쟁을 깨달을 것 같으면, 연소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더욱 부지런히 활동하게 될 것이다.

홀로 버려진 이 영혼들은 때때로 유혹을 받되 유혹의 악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충고를 구하는 것이 특권임을 깨닫게 해주라.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될 것이다. **6T 92, 93,**

시편 **26:1- 5** - "다윗의 시. 오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성실함 가운데 행하였으며 내가 또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빗나가지 않으리이다. 오 주여,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어 내 뜻과 내 마음을 판단하소서. 주의 자애하심이 내 눈 앞에 있으니,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였나이다. 내가 거짓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고 위선자들과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으니,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침례받기 위하여 그들 자신들을 제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심하였다고 공언하는 자가 다만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이름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주의 편에 서기를 택하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분리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침례를 주기 전에 후보자들이 경험한 것에 대하여 철저한 문의를 해야 할 것이다. 새로 개심한 자에게 이 질문을 냉랭하고 어렵풋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가리켜 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된다. 침례 후보자들이 복음의 요구 조건들을 적용시키게 해 주라. **6T 95**

에베소서 **2:1- 6** -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침례 후보자들 측에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들은 평소에 받아 온 것보다도 더욱 성실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진리를 찾아 온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생애의 원칙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무도 신앙 고백만으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없다.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으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해 준다. **6T 91**

고린도후서 **6:14- 18** -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고 하셨느니라."

그대가 하고 싶은 말을 골라서 하라; 이렇게 하면 영혼들을 대적하는 적에게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대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일하라. 그분의 천사들이 항상 그대의 좌우에서 그대의 말들과 그대의 태도, 그리고 그대가 행한 일의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다. 만일 그대가 선한 조언으로부터 돌아서고, 그대가 경험한 어떤 동기로, 비록 그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공언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로 그대가 의심하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선택하면, 그대도 곧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대가 사탄의 전쟁터인 유혹의 장소 안에 그대 자신을 놓으면, 사탄의 계획을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경계를 하지 않으면 유혹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느 때에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하나님도 없고, 민감한 양심도 없이 그들이 계획한 모든 목적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가치하고, 하찮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대화는 낮은 상태에 있다. **4T 588- 589**

사도행전 **2:36- 39** -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고 하더라."

계시록 2:2-5 -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 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고 침례받고 신앙을 고백한 자들의 일을 누가 비난할 것인가? 어떤 자는 그들의 첫번째 임무가 죄들을 회개해야 함을 양심적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다, 이것이 첫번째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의에 태양으로부터 귀중한 빛의 줄기가 우리의 길 위에 밝게 빛날 때, 어떤 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이 보낸 빛을 영혼의 방 안에 반가이 맞아들였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기쁘게 받았다. 다른 자들은 어두움의 오류들을 진리의 빛으로 구별하였으므로, 정연하게 그들의 영적인 시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무분별 때문에 그들에게 금과 은보다도 더 소중한 체험이 될 수 있는 진리를 잃어버렸다. 내가 두려운 것은, 어떤 자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진리를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불신과 자만심을 마음 속에 품은 것을 내가 보았으며,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개심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죄와 이기심과 자만심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물 속으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께 새로운 생애를 살 수 있을 때까지; 결코 물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믿음과 회개는 죄 용서함을 받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다.

로마서 8:35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침례 의식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연결된 사탄과 그의 종개인들에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하여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하여 일한다고 서약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모든 하늘이 일한다. 아버지과 아들과 성령이 성화된 인간 도구들의 편에서 협력하기로 서약하였다. 만일 우리가 참된 맹세를 하면, 하늘과 대화할 수 있는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 그 문은 어떤 인간의 손이나 사탄의 대리인들도 닫을 수 없다. 6 BC 1075

베드로전서 2:1-5 -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 분께 나아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생애를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다. 그들은 주께 거룩하고, 그 분께서 인정하신 자들이고, 그 분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다. 그러한 그들이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고, 그들 자신들을 구별하여 엄숙한 언약 아래 있게 되었다. 그들 자신들이 의의 옷을 입었다. 그들이 세상과, 세상의 영광, 관습들로부터 분리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분으로부터 배운 것을 드러낸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속에 침례 선서를 계속 간직하면, 이 세상이 그들을 매혹하여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는 능력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면, 신에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 SD 133

베드로후서 2:4-10 -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도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징계하여 재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의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 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엄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친교를 위하여 남모르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오직 이런 식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끊임없는 경계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수단이다.

주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더불어 언약하신 것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에 약점들을 알아차리고, 강건한 정신력으로 그것들을 거슬러 경계하여야 한다.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된 자들은 그 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일어났으므로, 그들 자신들이 새로운 생애 안에서 살 것을 서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골로새서 3:1-4. CT 158

갈라디아서 2:20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엄숙한 침례를 받게 될 때, 주님께서서는 저들이 주님께 진실한 약속의 서원으로 기록하신다. 이 서원은 저들의 충성을 다짐하는 서약이다. 저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리하여 저들은 하늘의 삼대 세력과 연합하게 된다. 저들은 스스로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을 지킬 것을 선서한다. 이제부터 저들은 중생의 길을 걷는다. 저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다. 또한 저들은 부정직한 방법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 저들은 하늘 왕국의 법칙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만일 저들이 저희가 한 서원에 끝까지 진실하다면, 저들은 은혜와 권능을 받아 모든 의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EV 307-308

요한복음 1:11-13 -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종교가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당하게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정신은 새로와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즐거이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한 열매이다.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의 영이 표현하는 대단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납하실 것이다. 어디서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영접해서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DA 189

한국어 웹 사이트; [csda-korea.org](http://csda-korea.org)  
[csda.kr](http://csda.kr)

영문 웹 사이트: [csdachurch.org](http://csdachurch.org)